 미래소비자행동 Consumer Action for Future www.can.or.kr	보 도 자 료	
	보고일시	배포 시부터 보고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23년 8월 16일(수)
	담당부서	미래소비자행동 조사사업본부 ☎ 02-706-1372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취지 살리면서 안전사용 가능하도록 관리체계 정비해야 !

- 전국 1,050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조사 결과, 1건 이상 판매준수 사항 위반 95.7%로 대부분,
-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1회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2022년도 조사때보다 위반 많아 ! 13개품목 모두 구비한곳 4.9%에 불과!
-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필요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에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5일간)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현황을 현장 방문 조사 하였다.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편의점이 5.2%를 차지하였다.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01~06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간에 재방문 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갯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판매품목의 개수 등을 조사하였다.

■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46.5%에서 약사법 위반해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되어 있어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업소는 46.5%로 나타났다

으며¹⁾. 3대 편의점의 경우 46.1%(458개),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는 53.6%(30개)에서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49.0%(514개소)로, 22년도 51.7%에 비하여 2.7%p 감소하였다.

[표 1]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단위: %,개소)

구 분	'22년 전체	'23년 전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1개 판매	51.7 (517)	49.0 (514)	50.9 (506)	14.3 (8)
2개 이상 판매	46.5 (465)	46.5 (488)	46.1 (458)	53.6 (30)
미확인	1.8 (18)	4.6 (48)	3.0 (30)	32.1 (18)
합계	100.0 (n=1,000)	100.0 (n=1,050)	100.0 (n=994)	100.0 (n=56)

■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업소 비율 '22년도 보다 3.1%p 감소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로 22년도 동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 권리'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56개소 중 대다수인 85.7%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3대 편의점(47.1%)에 비해 미게시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여부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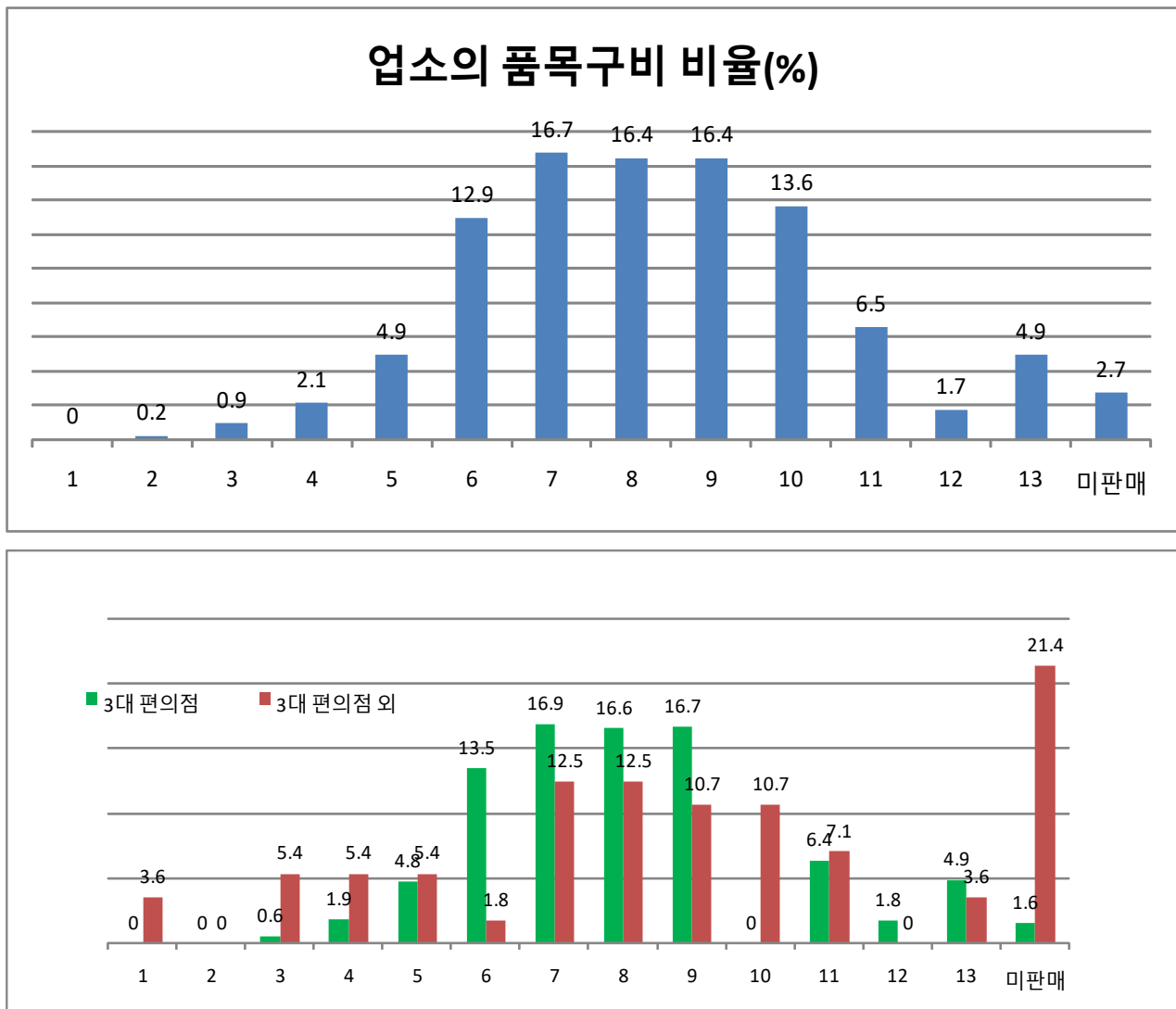
구분	'22전체	'23전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미게시	52.2 (522)	49.1 (516)	47.1 (468)	85.7 (48)
게시함	47.8 (478)	50.9 (534)	52.9 (526)	14.3 (8)
합계	100.0 (n=1,000)	100.0 (n=1,050)	100.0 (n=994)	100.0 (n=56)

1) 조사대상의 4.6%(48개)는 미확인 업소로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곳임.

■ 전품목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 4.9%에 불과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13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52개소)에 불과하였으며,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였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되었다.

[그림 1] 품목 구비갯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 5.6%(59개소)

본 조사대상 1,050개소의 업소 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4.4%로 22년도 96.9%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비율은 44.6%로 22년보다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4시간 운영 여부

(단위: %,개소)

구 분	전 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23년도	'22년도	'23년도	'22년도	'23년도	'22년도
운영	94.4 (991)	96.9 (969)	96.6 (960)	97.5 (905)	55.4 (31)	88.9 (64)
미운영	5.6 (59)	3.1 (31)	3.4 (34)	2.5 (23)	44.6 (25)	11.1 (8)
합계	100.0 (n=1,050)	100.0 (n=1,000)	100.0 (n=994)	100.0 (n=928)	100.0 (n=56)	100.0 (n=72)

■ 24시간 운영하지 않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는 경우 49개소(4.7%)

전체 1,050개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3.1%(32개소)로서 22년도 1.5%에 비하여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하는 업소(991개)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2.2%(22개소)로 조사되었다. 특히, 등록기준을 위반 24시간 운영하지 아니함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4.7%(49개소)로서 22년 21개소(2.1%) 비하여 133%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표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전체		24시간 운영		24시간 미운영	
	'23년도	'22년도	'23년도	'22년도	'23년도	'22년도
판매	96.9 (1018)	98.5 (985)	97.8 (969)	99.5 (964)	83.1 (49)	67.7 (21)
미판매	3.1 (32)	1.5 (15)	2.2 (22)	0.5 (5)	16.9 (10)	32.3 (10)
합계	100.0 (n=1,050)	100.0 (1000)	100.0 (n=991)	100.0 (n=969)	100.0 (n=59)	100.0 (n=31)

■ 의약품 가격 미표시 비율은 9.7%, 실제 가격과 표시가격 불일치 30.4%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업소는 90.3%, 가격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나 약 10%의 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가격미표시 비율은 30.4%로 나타나 소비자의 상품선택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가격정보가 없어 상품선택정보 알권리가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표 5]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전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가격표시 없음	9.7 (102)	8.6 (85)	30.4 (17)
가격표시 있음	90.3 (948)	91.4 (909)	69.6 (39)
전 체	100.0 (n=1,050)	100.0 (n=994)	100.0 (n=56)

또한 표시된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시 가격과 실제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로 나타나 이 또한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간 불일치비율이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단속활동과 매장점주 대상 교육 및 계도활동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가격표시와 실제내용 일치여부

(단위: %,개소)

구분		전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가격표시 매장	실제가격과 일치	90.9 (862)	92.4 (840)	56.4 (22)
	실제가격과 불일치	9.1 (86)	7.6 (69)	43.6 (17)
가격표시 매장 전체		100.0 (n=948)	100.0 (n=909)	100.0 (n=39)

■ 1건 이상 판매준수사항 위반 95.7%로 대부분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한번에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많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필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상 위험을 감수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 도입된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서, 상기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소매업 경영)를 갖춘 자로서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 판매에 있어 1회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령에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품목), 건위소화제(4개 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로 1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2013년 7월 20,385개소에서 2022년 6월 현재 43,657개소로 114% 증가하였으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금액은 2013년 154.4억원에서 2022년 537.5억원으로 248% 증가하였다. 이같이 지난 10여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및 안전상비의약품 사용량은 급증한 반면, 금번 조사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 중 1개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에 불과하고, 95.7%가 1개 이상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49.1%, 동일품목을 한번에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46.5%로 위반이 많았다. 또한 24시간 점포운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을 등록하고 있는 점포도 5.6%로 나타났다.

[표 7]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현황

(단위: %, 개소)

위반 정도	전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정상 판매	4.3 (30)	4.6 (29)	1.8 (1)
1개~5개 위반	95.7 (1020)	95.4 (965)	98.2 (55)
합 계	100.0 (n=1,050)	100.0 (n=994)	100.0 (n=56)
위반 유형	전 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49.1 (516)	47.1 (468)	85.7 (48)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	46.5 (488)	46.1 (458)	53.6 (30)
24시간 연중무휴 미운영	5.6 (59)	3.9 (34)	44.6 (25)
(판매자 등록업소임에도) 안전상비의약품 미판매	3.1 (32)	2.0 (20)	21.4 (20)
가격미표시(102) 또는 표시가격 불일치(86)	17.9 (188)	15.5 (154)	60.7 (3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및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가격표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